

생각하는 교회

성경말씀: 빌4:1-9

바른 교회의 모습: 말하는 교회, 연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주는 교회, 실천이 나와야 한다. 살면서 걱정하게 된다. 교회를 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한다. 걱정을 가장 많이 했을 사람: 바울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함

빌립보 교회의 분열 문제(1:14-17)

유오디아와 순두게 문제: 열심히 일하는 자매들,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들(3절)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2절).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 바른 생각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

생각이 올바라야 바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잠4:23).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둔다.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구원과 성화 모두 생각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구원 받은 이후의 성화는 한 마디로 인격이다. ★★★

‘끝으로’의 의미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빌3:1).

회고: 회심 이전의 갈등, 회개의 두려움과 슬픔, 믿음의 소망과 두려움, 복음 선포, 감옥 수감 둘째 끝으로: 그리스도의 구출의 기쁨을 넘어선 무엇이 있다. 그것은 그분 안에서 완전한 인격이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자기 같은 바리새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선포했다. 그런데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가라지 교리를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다. 즉 구원 받은 후에 성화 과정을 게을리 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 구원이 끝이 아니다. 여기 이 땅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3장에서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던 것들을 나열하고 이런 것은 배설물과 같음을 보임(5-7). 그리고는 여기 4장 8절에서 “끝으로”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인격 함양을 강조한다.

구원 이후의 성화에는 하나님의 본성, 인격 함양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로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는 바로 인격 함양의 십자가이다. ★★★

곰곰이 생각하라

인격 형성: 성경이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각하는 기능’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성경은 ‘선한 것 좋은 것’을 원리적으로 보여 주지만 무한한 적용 사례는 우리에게 맡긴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의 목록을 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이 이상은 해야 한다고 한다.

생각하는 것에 의해 크리스천 간의 차이가 생긴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문제야, 조금 다녀도 모범생: 이 차이는 곰곰이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9절). 빌2:12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로 들었다.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빌3:17). ★★★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는다. 역사서를 읽는다.

성경 안에 모든 사람의 인격이 다 들어 있다. 아담과 이브, 파라오, 모세, 다윗, 야간, 예수님, 가룟유다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

지금 바울의 상태: 로마의 감옥에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 ★★★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1.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예수님의 선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8:44),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시킨다.

걱정에 대한 통계; 8%만 진짜고 나머지는 상상에 의한 것이다.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

“그래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영은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시나(요17:17; 요일

5:6) 마귀는 거짓으로 한다.

빌라도의 진술: 유대의 총독, 요18:38

약속한 것, 계획한 것, 말한 것(일구이언하지 않는다), 우정에서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 죄와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영원한 세상, 구원과 심판

오늘 창조와 진화 세미나: 진화는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 중의 하나이다.

꼼꼼이 생각해야 한다. 구원과 성화가 여기에 달려 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딤후3:15). 여기서 진리만 말해야 한다. ★★★

2.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원래 이 말은 존경받을만한 것을 뜻한다. 물론 정직한 것을 말하지만. 그것의 근원이 되는 존귀함을 가리킨다. 사회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 안에 정직함도 포함된다. 감독의 조건(딤후3:7)
3.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의로운 것을 따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보다 정직함과 의로움을 더 본다. 편파성이 없어야 한다. 빈부귀천, 유무식의 편파성, 야고보서
4.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생각과 행동과 말이 순수해야 한다. 이성 간의 교제와 언행(딤후5:2)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은 순수함을 잃고 있다. 욕하는 아이들 기사, 전 세계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 요셉이 정결을 지키려고 뛰어나감
5.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어떤 사람이라도 기쁘게 하는 것, 별들이 다 빛나지만 더 빛나는 별들이 있다. 좋은 성격의 소유자, 좋은 사람은 좋은 교회, 배려하는 마음(새로 오는 사람들)
6.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행동, 예의와 품격을 갖추는 것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나도 거기 다니고 싶다.”
7.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 그 외에 덕스러운 모든 것, 단편적인 예: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것
8. 무엇이든지 칭찬이 되는 것: 칭찬받아 마땅한 것, 지난 주 이탁영, 이상현, 오광일, 송재근 형제 무엇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해야 바뀌고 바뀌어야 실행해서 살 수 있다.

무엇이 기준인가? 시19:7-10

7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9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10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한다. 갈5:22-23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결론

구원과 성화가 다 중요하다.

구원받은 이후에 인격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꼼꼼이 생각해야 한다.

1.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2.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3.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4.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5.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6.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7.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 8. 무엇이든지 칭찬이 되는 것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빌3:17). ★★★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